

# 특 집

우리 주변국의 낙농육우 현황

## 일본의 낙농육우 현황

김 남 용  
본회 전무이사

### 1. 서 언

일본의 낙농육우산업도 수입개방, 그리고 개방압력에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다. 유제품도 자연치즈에 이어 가공치즈도 개방되었으며 아이스크림도 개방되었다. 미·일간의 유제품협상에서 '94년도까지 수입쿼터량을 합의하여 발표하였으며 설상가상으로 '91년 4월 1일 부터 쇠고기가 수입개방되면서 젓소 송아지가격과 폐우가격이 폭락하여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그러므로 성령화·규모화 단위당 생산량 증가 그리고 생산비 절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낙농경영자의 고령화, 후계자 확보난 등으로 연중 약 6% 정도의 낙농가가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두수는 210만두 전후에서 고정되어 있으며 전체 우유생산량도 증가하였고 소비량도 2% 정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육우분야에서는 '91년 4월 1일 부터 쇠고기가 수입개방되면서 당년에는 이미 수입되어 있던 양으로 인하여 수입량이 오히려 전년보다 감소하였으나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수입육과 품질이 대등한 젓소고기는 가격이 하락하여 낙농가의 경영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일본의 화우는 그간 역용에서 육용으로 개량하였으며 또 화우육이 아니면 그 특수한 맛이 나지 않는 요리도 개발 보급하였으며 많은 국민들이 화우육에 익숙해져

가정에서는 수입육을 외면하였으나 한해 두해가 가면 서 또 수입육 취급업체에서 집중적인 홍보의 결과 수입육취급점도 증가하였으며 또 수입육 취급율도 50% 선을 넘어 서게 되었고 가정에서도 점차 수입육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어 그동안 화우만은 쇠고기 수입자 유향이 되었어도 값은 강세를 유지하였으나 서서히 수입육의 영향을 받아 값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미국등에서 화우정액을 수입하여 연구 번식하여 그 쇠고기가 일본으로 역수출되고 있어 일본의 육우산업에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는 실정이다.

### 2. 낙농산업

'92년 8월의 일본 농림수산성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낙농가는 4만 5881호이며 이들 낙농가가 사육하고 있는 젓소는 215만 5,000두로 전년비 0.6%증가로 두수로는 1만 3,000두 증가하였다. 이중 경산우는 128만 8,000두로 전년동기 3,000두 0.2% 증가하였고 미경산우는 81만 7,000두로 전기동기비 1.2%, 1만두가 증가하였다. 일본은 낙농경영자의 고령화와 후계자 부재가 낙농가 감소원인이며 연간 6%의 감소경향이다. 폐업농가의 경산우사양 두수는 10두미만이 57.3%, 10~19두가 21.4%며 폐업농가의 경영자는 60세 이상이 49.1%, 50대가 28.9%로 고령에 집중되어

있다.

원유생산량은 연간 858만 181톤으로 우리나라의 연간 생산량 191만톤에 비하면 4배를 넘는 물량이다. 원유의 용도별 유통동향을 보면 음용유에 58%, 발효유에 1%, 가공원료용에 38%, 생크림에 3%이다.

'92년 유제품수입량은 50만 6,768톤으로 원유환산 350만톤이나 전년비 4.4%의 감소를 보이고 있다. 수입자유화된 자연치즈는 12만 5,942톤(원유환산 169만 1,401톤)으로 전년비 3.4% 증가하였으며 가공치즈는 89년 4월 개방되었는데 1990년 1,700톤 전년비 329.3% 증가, 91년 2,211톤 전년비 30.1% 증가, '92년은 6.5%증가에 그쳤다. 벌써 오래전에 수입이 자유화되어 일본 낙농계를 괴롭혀 온 것이 이 근자에 우리나라에서도 낙농계를 괴롭히는 것이 코코아 조정품과 식용유 조정품으로 이것들은 우유성분이 많게는 각각 85%, 15~75% 함유되어 있다. 연간 수 만톤씩 수입되어 국내산 유제품시장을 공략하였던 것이다. 이미 자유화된 품목을 다시 묶을 수가 없어 고민만 하였던 것이다. 그것이 우리나라에서도 재판되고 있다.

일본은 1955년에 가트(GATT)에 가입되었으며 1963년에 11조 국(BOP졸업)이 되었다. 그러나 일본은 전지 및 탈지가당연유, 버터밀크파우더, 웨이파우더, 버터를 국가무역 품목으로 설정하여 수입을 규제하고 있다. 미국의 줄기찬 개방압력에 의하여 미·일 협상에서 '94년도까지의 수입량을 결정·합의된 양만큼 수입하고 있다.

일본은 유제품에 대한 개방압력에 대해 현행의 부족불지불체도를 견지하면서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생산조정체제를 유지해 나가되 점진적인 생산비 절감 노력을 통해 생산비 인하를 실현하면서 EC 수준의 경쟁력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미 북해도는 EC 수준 이상이 되었다.

일본의 3대 유업체인 메이지, 모리나가, 유기시루시사는 유업체 자체의 경영이 어려워졌고, 원유의 생산량이 증가한 반면 음용유소비가 둔화되어 수급에 있어 공급과잉을 이유로 들어 '93년도의 음용유 생산자유가를 kg당 3~5엔을 인하하겠다는 내용을 각 지방의 지정생산자 단체에 통첩하여 각급 낙농단체들이



이의 부당성을 들어 항의를 하면서 시위를 하고 있으나 원유가 잉여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그 결정을 반복하기가 어려운 상태다.

일본의 유제품가격을 보면 농업계공장에서 생산하여 판매하는 것과 상업계에서 생산하여 판매하는 가격이 약간 차이가 있다. 즉 농업계에서 생산하여 판매하는 것은 값이 약간 저렴하다. 탈지분유 파운드(450g 정도)당 가격은 상업계 240엔 전후, 농업계 238~237엔, 경합되는 지역 235~232엔, 체화물은 관동지방에서 225엔 전후 북해도산 220엔 전후로 전체 소비가 부진한 상태다. 버터는 상업계 무염이 510엔, 농업계 490엔, 전지분유는 25kg이 18,900~19,400엔 정도다. 시유가격은 200cc들이 소비자가격이 100엔 정도다.

일본도 낙농경영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낙농경영의 여건을 개선하고자 여러가지 사업을 책정 예산의 뒷바침을 하고 있다. '93년도에 낙농경영 안정대책이라고 하여 105억엔을 책정하고 유육복합 경영추진으로 낙농경영 안정을 위하여, 경산우비육 또는 수정란이식 등에 의한 저능력암소의 번식이용촉진, 초생우의 자가공동 포육촉진, 원유수급의 불균형을 긴

급히 시정키 위하여 젊은 저능력우의 육용자원으로 활용에 필요한 조치 등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도 많은 조사료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풀까지 수입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관점에서 조사료 수입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나 일본에서는 유제품들이 속속 개방되어 수입되고 있으며 후계자가 없다든지, 또는 농촌이 고령화되면서 노동력의 부족 현상 등의 역경을 극복해 일본에서 낙농산업을 유지케 한다는 차원에서 사료정책, 조사료 정책을 세우고 있다. 그러므로 조사료도 수입하여 급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면 수입을 주저없이 한다. 이런 조건 저런 조건을 걸어서 조사료 수입에 제동을 가한다면 결국은 낙농산업은 쇠퇴하여지고 결국은 국내에서 생산하는 조사료까지 생산을 중단하게 된다는데 착안 낙농가들이 원하는 한 어떤 조사료건 수입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산 볏짚과 대만산 볏짚이 수입되고 있으며 또 그의 목초진초도 여러나라로 부터 수입되어 젖소의 산유능력을 최대한 발휘시키고 또 우유의 생산비도 경쟁력 차원에서 인하 시키고 있다.

일본은 낙농진흥을 위한 낙농3법이 있다. 첫째. 낙농 및 육용우 생산 진흥에 관한 법률이다. 당초에는 낙농진흥법으로 되어 있었으나 유육복합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개정하여 육용 송아지 생산도 권장하고 있다. 둘째. 축산물가격안정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주요축산물의 가격안정을 기함과 아울러 축산 및 관련산업의 건전한 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로 "원료유 및 지정식육의 안정기준가격" "지정유제품의 안정하위가격" "지정유제품 및 지정식육의 안정상위가격"을 정하는 것으로 되었다. 셋째. 가공원료유 생산자보급금 등 잠정조치법이다. 이 법은 "우유 및 유제품의 수요의 동향과 원유의 생산사정의 변화에 대처해서 당분간 축산진흥사업단으로 하여금 원유생산자단체를 경유하는 가공원료유에 대한 생산자보급금의 교부, 수입유제품의 조정에 관한 업무 및 이들 업무와 관련하여 유제품의 매입, 매도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함으로써 원유의 가격 합리화와 우유 및 유제품의 가격안정을 통해 낙농 및 관련산업의 건전한 발달을 촉진하고 아울러 국민식생활개선에 기여함을 목

1989년도의 화우 암소(270kg 전후)의 가격 409,300엔, 숫소 473,400엔 하던 것이 1992년 12월 암소 326,000엔, 숫소 406,200엔으로 하락하는데 그쳤으나 젖소 1주령 숫송아지는 89년 126,100엔하던 것이 1992년 12월에 39,230엔으로 1/3 이하값으로 떨어졌다. 일본은 91년 4월 쇠고기수입을 자유화하면서 관세를 당년에 70%, 92년 60%, 그리고 금년에는 50%로 책정하였으므로 수입육의 급격한 수요를 억제할 수가 있었으나 금년도에 들어서면서 수입육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률은 잠정적이라고 단서를 붙이고 있으나 25년 이상 지속시키고 있다.

일본의 낙농관련 생산자단체는 조직도 복잡하고 그 수도 많으나 대표적인 생산자단체 3개만 소개코저 한다. 첫째. 사단법인 중앙낙농회의(약칭 : 중낙) 1962년에 설립되어 전국의 47개 지정 생유생산자 단체를 포함하여 총 52개의 회원조합을 회원으로 하고 있다. 주된 업무는 각 지역의 회원조합인 지정생유 생산자단체가 생산한 원유의 원활한 판매, 소비확대, 가격안정 및 계획생산조장 등이다.

우리나라가 개정하려는 낙농진흥법에 명시되어 있는 낙농진흥회의의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둘째. 사단법인 전낙농협회(약칭 : 전낙협) 본 협회는 1946년에 설립되었으며 현재는 38개의 회원단체가 가입되어 있다. 주된 업무는 농정활동이 중심이며 특히 가격결정 및 낙농관계 제도 등과 관련한 대정부 로비활동을 통해 낙농가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전낙협은 일본의 여당이었던 자민당에 대한 로비를 통해 "낙정회"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으며 자민당 국회의원 200여명이 이 모임에 가입되어 있어 사실상 낙농과 관련된 각종 제도 및 법률운영에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다. 일본의 낙농가는 전체 농가의 2%에 불과하면서 낙농부문에 대한 정부의 예산배정 및 각종의 지원정책은 놀랄만 하다.

원유에 대한 부족지불제도가 잠정조치법으로 25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것은 전낙협과 같은 생산자단체의 대정부활동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운영은 전국에 걸쳐 있는 회원들의 회비에 의존하고 있다. 셋째 일본낙농정치연맹(약칭 : 낙정연)이 1955년에 설립되었으며 1990년 현재 68,000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다.

낙농정치연맹은 전국 낙농협회의 실질적인 대외 행동대원으로 젊은 층이 많으며 두 단체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으며 임원도 서로 겸임하고 있기도 하다. 주요 업무는 전낙협의 농정활동을 돕기 위한 전위대의 역할이다.

일본의 낙농업은 제도적인 뒷받침과 낙농가 생산자단체의 로비에 영향을 받으며 정부에서 일본의 낙농을 지키겠다는 의지하에서 상황의 변동에 신속히 대처하면서 발전되고 있는 산업이라 하겠다.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일본은 낙농산업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되 우선 제도(법률)를 마련하고 그 제도하에서 지원되고 있으므로 일시적으로도 정책입안자의 자리 옮김에 관계없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특색이라 하겠다.

### 3. 육우산업

일본은 1991년 4월 1일 부터 쇠고기수입 자유화가 되었다. 그 전년까지만 해도 매년 6만톤씩 쿼터량을 늘려서 수입하였으며 자율구매(SBS)도 그 율을 높여오다 자유화에 일치시켰다. 그러므로 수입 당년에는 전년에 수입된 쇠고기의 재고가 10여만톤에 이르렀으므로 수입이 오히려 감소하였었다. 즉 '90년도에는 47만 7,828톤의 쇠고기가 수입되었으나 '91년에는 46만 2,358톤이 수입되었다. 그러나 92년에는 전년대비 14%나 증가한 52만 7,090톤이 수입되었다. 일본은 22만 농가가 약 280만두의 육용우를 사육하고 있다. 즉 육생산 전용종은 '91년 현재 173만 3천두, 육용종 비육(주로 젖소 수소)은 106만 3천두다. 약간의 두수의 증감은 있으나 별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사육농가는 매년 5% 정도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 쇠고기의 수입량이 증가하면서 육용종비육 농가는 급격히 감소 연간 12%씩 감소하여 2만여호에 불과하다. 즉 육용종이 수입육과 직접 경합이 되어 값이 급격히

하락하여 육용종을 비육하여서는 수익을 올릴 수 없다는 판단하에서다. 일례를 들면 1989년도의 화우 암소(270kg 전후)의 가격 409,300엔, 숫소 473,400엔 하던 것이 1992년 12월 암소 326,000엔, 숫소 406,200엔으로 하락하는데 그쳤으나 젖소 1주령 숫송아지는 89년 126,100엔하던 것이 1992년 12월에 39,230엔으로 1/3 이하값으로 떨어졌다. 일본은 91년 4월 쇠고기수입을 자유화하면서 관세를 당년에 70%, 92년 60%, 그리고 금년에는 50%로 책정하였으므로 수입육의 급격한 수요를 억제할 수가 있었으나 금년도에 들어서면서 수입육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관세 10% 인하가 수입육 값을 6~7% 인하효과가 있었으며 쇠고기 대량 취급소에서 그간은 국내산 쇠고기를 주로 취급하였으나 금년에는 이미 슈퍼에서 50~55%의 수입육을 취급하고 있고 가정에서 수입육을 외면하던 것이 수입육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91년도만 하여도 쇠고기자급율이 52%였던 것이 50%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다. 이와같이 수입육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수입쇠고기 대량 취급처의 지속적인 홍보에 의해서다. 또 미국에서는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화우를 연구하고 또 사육하고 그 고기를 일본에 수출하고 있기도 하다. 일본인은 세계에서 육질을 제일로 따지는 국민이다. 또 고기를 덮석 덮석 먹는 습성이 아니고 얇게 썬 고기를 입에 조금씩 넣고 고기의 맛을 즐기며 먹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일본 화우도 일본인들의 입에 맞도록 개량하였으며 또 화우의 고급육이 아니면 제맛을 낼 수 없는 요리를 즐겨 먹는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샤브샤브 또는 징기스칸 요리가 그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 우려하는 것은 50대 이상은 화우고기에 맞드려졌지만 그 이하는 그렇지 않아 50대의 수가 감소하면 할수록 화우의 경쟁력도 떨어진다는 사실 그리고 소득이 높아지면서 외국에 많이 드나들고 국내에서도 호텔의 양식부에서는 전부 수입육으로 요리를 하므로 수입육에 맞드려지는 속도가 빠르다는 사실이다. 금년 들어서면서 화우값도 떨어지기 시작했다고 화우사육 농가들이 우려하고 있기도 하다. 일본의 '93년도 육우수급계획은 다

음표와 같다.

생산량 605,000톤  
수출량 80톤  
수입량 650,000톤  
계 1,234,920

(전년대비 107%, 전체육류구성비 24%)

이 수급계획만 보더라도 국내자급도가 48%, 수입율이 52%를 점하고 있다. 일본은 송아지 생산자도 안심하고 송아지를 생산케하고 또 비육농가도 송아지를 싸게 그러면서도 계속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육용자우가격안정 등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송아지값을 지지하여 주고 있다. 또 낙농경영에 도움을 주면서 육자원도 확보하기 위하여 유육복합경영강화, 경산우활용 강화사업으로 숫송아지 육성, 비육조성사업, 폐용경산우 재비육 번식 이용의 조성사업을 강화하고 있으며 또 희망자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종래는 생후 7일 정도에서 출하하던 것을 1개월 이상, 4개월 이상, 12개월 이상 육성비육을 하였을 시 경비의 일부를 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즉 1두당 각각 7천엔, 1만 2천엔, 1만 6천엔씩이며 20만두 정도가 실시하고 있다. 낙농가에 의하여 집단육성(4개월 이상 두당 1만엔지급)도 6만두에 이르고 있다. 한편 젖소 경산우 활용대책사업은 현재까지 폐우를 그대로 출하하던 것을 재비육하여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두당 2만엔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젖소 폐우를 수정란이식에 의한 쌍자생산, F1생산에 활용하면 수정란용 경산우에는 4만 3천엔, 젖소 폐우 6만엔, F1형 젖소 폐우 8천엔을 지급하고 있다. 재 비육 두수는 7만두, 번식이용은 2만 6천두가 참여하고 있다. 재 비육으로 육류등급은 상향되고 있어 수입이 늘어나고 있다.

1993년 2월의 동경식육시장의 지육가격을 보면(kg 당)

화우거세 A<sub>5</sub> 2,571엔(전년비 98%)  
A<sub>1</sub> 1,478엔(전년비 91%)  
유우거세 B<sub>3</sub> 906엔(전년비 91%)

위의 표에서도 나타나듯이 금년 들어서면서 가정에서 수입육을 이용하면서 경쟁력을 자랑하던 화우도

일본의 육우산업을 근심하는 시민들의 일부에서는 주에 1회 정도는 화우육을 구입, 가정에서 화우육 요리를 하여서 먹는다고 한다. 이는 화우산업을 육성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가족에게 화우고기맛을 잊지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가족들이 화우맛을 잊지않아야 화우산업도 일본에서 계속 존속할 수 있다는데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한우고기를 속지않고 살 수 있는 곳이 극히 제한되어 있어 시민들이 한우육을 사고자 하여도 쉽게 살 수 없는 것이 제일 큰 문제다.

값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다. 일본의 육우산업을 근심하는 시민들의 일부에서는 주에 1회 정도는 화우육을 구입, 가정에서 화우육 요리를 하여서 먹는다고 한다. 이는 화우산업을 육성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가족에게 화우고기맛을 잊지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가족들이 화우맛을 잊지않아야 화우산업도 일본에서 계속 존속할 수 있다는데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한우고기를 속지않고 살 수 있는 곳이 극히 제한되어 있어 시민들이 한우육을 사고자 하여도 쉽게 살 수 없는 것이 제일 큰 문제다.

일본의 육우산업을 언제까지 지탱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 일본의 화우농가들의 관심사다. 화우육이 아니면 제 맛을 낼 수 없는 음식이 있고, 또 일본국민들이 쇠고기의 질을 따지기로는 세계에서 제일이고, 일본의 소인 화우가 일본 국민들의 입에 맞는 좋은 질의 고기를 생산하고 있으며 국민들도 화우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있어 가정에서 의도적으로 화우육을 구입하는 등 정부, 국민, 그리고 화우를 사육하는 양축가, 유통을 담당하는 유통업자들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화우산업을 지키고자 노력을 하고 있어 수입육의 점유율이 계속적으로 증가되어 화우산업도 지금보다는 위축 되겠지만 어느 수준은 계속 유지하리라고 본다. 우리나라도 한우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지금 한창 고조되고 있지만 우왕 좌왕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데 비하면 일본의 화우산업은 한결같은 정책, 의지면에서 우리의 한우산업과는 맥을 같이하면서도 대조적이다.